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여 뜨겁고 습기가 많았던 여름의 기억을 남기고 서늘한 바람으로 가을 맞을 마음의 준비와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편지에 적었듯이 6월 28일 어머니의 위독한 연락으로 입국 허락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울면서 이메일을 쓰고 급히 사역지를 떠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폐렴은 저에게 한국에서 7월 중순에 건강검진 받을 기회를 주셨고, 부인과의 이상 소견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8월 2일 수술을 했고 퇴원하여 회복하면서 24일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1년 이란에서 비자발적 입국(추방) 이후에도 한국에서 수술을 했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착한 혹으로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에도 주님의 긍휼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떠나온 사역지의 소식은 기도 요청이 필요함이라 생각됩니다. 현지의 사역자들도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아직 어떤 단체인지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갈라디아 지역 선교사들이 정부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구해 주세요.

 거의 매월 기도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 분들은 손쉽게 소식을 전하지만 우편으로 발송하는 동역자님들은 편지를 담당해주던 자매의 사정으로 소식이 뜸하였습니다. 우편 소식이 끊기면 파송 단체인 지오( Global Operation)로 연락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8. 19. 김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일정이 되도록
2. 8월 24일 조직검사 결과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3. 사역지의 교제하던 영혼들과 태신자들이 예수를 아는 기회가 되도록
4. 어머니의 병원 생활과 언니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5. 동역하는 교회와 후원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